

한국 청소년의 글로벌 시민성 유형 분석: 학교급별 시민교육에 주는 함의

이은경(李恩京)*
오민아(吳玟雅)
김태준(金泰俊)**

논문 요약

글로벌 시민성은 세계시민으로서 갖는 의식과 태도이며, 21세기 글로벌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는 전 세계적 네트워킹과 국내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해 필수적인 역량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시민성 유형을 제시하고, 그 유형들이 다른 시민성 요소 및 청소년 개인들의 배경요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글로벌 시민성은 네 가지 영역(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 의식, 국제 관계 이해, 성인지)에서 측정되었으며, 전국 16개 시도의 초·중·고등학생 6,637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하여, 7개의 한국 청소년 글로벌 시민성 유형이 도출되었다. 글로벌 시민성 유형 7가지는 각각의 특징에 기반하여 글로벌리더형, 반성인지형, 소외형, 부정적 이민태도형, 비국가주의형, 성인지형, 비관용형으로 명명되었다. 개인 및 공동체 시민성과 관련하여, 이상적인 글로벌 시민성 유형으로 구분되는 글로벌리더형에서는 개인 및 공동체 시민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유형으로 구분되는 소외형에서는 개인 및 공동체 시민성이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글로벌 시민성의 유형별 특징에 따라 개인 및 공동체 시민성 영역별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개인의 배경변인 중에는 성별, 학교급간, 생활만족여부에 따라 유형별 차이가 나타났다. 남녀 성별의 차이는 주로 글로벌 시민성 중 성인지 영역 수준에 따라 나타났으며, 학교급에 따라서는 학교급이 낮을 때보다는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적(소외형, 부정적 이민태도형, 비국가주의형) 유형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유형에서 생활에 만족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 부정적인 유형에서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글로벌 시민성의 유형과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개인의 배경 정보에 따라 개별화된 글로벌 시민성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학교급간에 따른 글로벌 시민성 교육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글로벌 시민성, 세계시민성, 시민교육, 다문화교육, 군집분석,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 제1저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I. 서론

한국은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국제사회의 구성원이면서, 내부적으로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경제적 환경 변화와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글로벌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국가 간의 경계보다는 지구적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면서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과거 단일민족 국가였던 한국은 2013년 기준으로 국내 총 인구의 3%가 외국인이거나 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이효미 외, 2011; 김정덕, 이은경, 2014). 나라 밖에서는 글로벌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계의 문제에 책임있게 반응하면서 나라 안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시민으로 이질적 집단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글로벌 시민성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김태준, 이석희, 2010).

글로벌 시민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인 및 청소년들의 글로벌 시민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머무르고 있다(김태준 외, 2009). 세계 3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가치조사(WVS, World Value Survey) 2005년과 2009년 결과 모두에서,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는 OECD 회원국의 평균뿐만 아니라 OECD 비회원국의 평균보다 낮았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비교 조사인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urvey) 결과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의 인종에 대한 태도가 다른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김태준 외, 2009).

글로벌 시민성의 시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시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시민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선곡유화, 이영선, 2014). 그러나, 글로벌 시민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과 논의 전개에 비하면, 글로벌 시민성 개발을 교육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 청소년의 글로벌 시민성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글로벌 시민성에 대한 연구들은 글로벌 시민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안하거나(김다원, 2011; 이관춘, 2011; 한상철, 2009), 그 구성요소를 탐색하여 척도를 개발하거나(백소영, 2013; 노상충 외, 2012; 이효미 외, 2011),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왔다(이한웅, 2014).

한국 청소년들이 어떠한 글로벌 시민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사회적 변인들과의 글로벌 시민성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학교급에서 어떠한 글로벌 시민성 교육이 효과적인지 등, 글로벌 시민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탐색과 깊이있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들의 글로벌 시민성의 유형화를 시도하여 이들이 가진 글로벌 시민성의 특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학교급을 포함하여 다양한 변인들이 글로벌 시민성 유형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글로벌 시민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글로벌 시민성 교육이 학교급별 및 기타 개인의 환경요인에 따라 어떻게 효과적일 수 있는지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글로벌 시민성

글로벌 시민성은 한 개인이 세계시민으로서 갖는 의식과 태도이다. Richardson(1997)은 글로벌 시민을, 시민을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고, 전세계적 도전 가운데에 자신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며 또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개인의 글로벌 시민성을 측정한다는 것은 개인이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면서 전 세계와 연대감을 갖는 세계관을 갖는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다(Hett, 1993).

글로벌 시민성은 전세계 인류 간의 상호의존, 국경을 넘어 인간이라면 모두 갖는 보편적인 권리와 책임, 미래지향적 관점,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을 지향한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민성이 갖는 핵심은 “근본적으로 나와 다른 세계의 또 다른 면에 대해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다(김정화 외, 2010, 186).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시민성뿐만 아니라 여러 유사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예로 세계 시민성, 세계시민의식, 글로벌 시티즌십(global citizenship), 글로벌 마인드(global mind)가 있다(오석영 외, 2015; 권정인, 2013; 김옥순, 2010; 윤철경, 박선영, 2011; 정용교, 2013). 대체로 이 단어들이 시민성과 관련하여서는 유사한 것을 지칭하고 있기는 하나, 조금씩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국제화가 이루어지는 영역과 방향에 따라, 한국어에서는 세계화와 지구화(글로벌화)의 의미가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차원의 지구화 현상을 강조하여 지칭하는 세계화보다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측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글로벌¹⁾ 시민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이동수, 2009; 김태준, 이석희, 2010).

글로벌 시민성의 출발은 시민의식이라고도 불리는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 범위 안에서의 시민성이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글로벌 시민성으로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되는 연결망이 강화되고 있고 한 국가 내에서도 다문화적 현상들이 나타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 국가의 시민성이 글로벌 시민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정용교, 2013). 이렇듯, 글로벌 시민성은 국가 단위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개인의 태도이자 인식이며, 동시에 이에 대한 실천 능력이다(Oxfam, 1997; 한상철, 2009). Davies(2006)는 시민성에는 권리와 책임이 공존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시민성이 역동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의, 인간의 권리, 문화/문화갈등에의 참여 등과 같은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시민성의 개념에 자신과 다른 계층이나 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포함되는 것처럼, 글로벌 시민성에서는 문화적 다양성

1) '지구' 혹은 '지구적'이 좀 더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 한국어 표현이기는 하나, 일반적 상용성을 고려하여 '글로벌'로 결정하였음

을 수용하고 외국인에게 관용적 태도를 갖는 것이 포함된다.

글로벌 시민성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관점도 존재한다. Parekh(2003)는 글로벌 시민성이 세계의 시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실제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하면서, 대신 각 나라 및 민족의 고유한 상황을 존중하면서 글로벌을 지향하는 시민성(globally oriented citizenship)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연구들은 시민참여 관심에 초점을 두고, 사회참여역량을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성은모 외, 2015; 오석영 외, 2015; 김태준, 백선희, 2014). 개인 시민성은 시민의 일원임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참여의 기초가 되는 민주적 가치(권리, 책임감, 준법의식, 소속감, 신념 등)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오석영 외, 2015; 김기현 외, 2009; 유현숙 외, 2004). 더 나아가, 개인 시민성은 개인들이 공공정신에 입각하여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고, 정치나 선거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표된다.

공동체 시민성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민주적 원리를 존중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지칭한다(Philips & Bermana, 2001; 오석영 외, 2015; 유현숙 외, 2004). 공동체 시민성에서는 신뢰와 관용이 강조되는데, 이는 대인 간에 신뢰를 갖고 더 나아가 정부, 정당 등과 같은 공공체도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과 시민적 자유주의를 사회 내 소수의 집단에게도 적용하여 그들의 자유와 권리에 관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김태준, 백선희, 2014). 개인 시민성이나 공동체 시민성과 구분되는 세계 시민성의 구성요소는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민주적 가치나 다양성 존중 및 다양한 가치의 수용 등이 포함된다(김태준, 백선희, 2014).

반면, 김정화 외(2010)의 연구는 글로벌 시민성을 세계시민의식과 문화다양성태도로 구분하여 측정 및 분석하였다. 세계시민의식은 Hett(1993)의 연구에 기초하여, 세계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윤리적 책임감, 전 세계 사람들과의 연대감, 자신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관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효능감으로 구성되었다. 문화다양성 태도는 Stanley(1996)의 연구에 기초하여, 문화다양성 가치를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 등에 적용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었다.

2. 글로벌 시민성과 개인의 특성 및 환경 간의 관계

글로벌 시민성이 개인의 특성 및 환경과 갖는 관계는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고, 이는 글로벌 시민성 교육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글로벌 시민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Wimmer(1997)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지닌 사람일수록

이주자에 대한 권리 부여에 있어 적극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연령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입장을 수용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글로벌 시민성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발달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 글로벌 시민의식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 결과에서 연령 증가에 따라 글로벌 시민의식이 낮아지는 결과들이 일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해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천정웅, 2013; 천정웅, 2014; 최인재 외, 2011; 김태준 외, 2010). 더 나아가, 발달적 연령 증가와 글로벌 시민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선행연구들 간에 서로 불일치한 결과들이 보고되었으며, 더욱이 이러한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김정화 외(2010)의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과 문화다양성태도의 측정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의식 및 문화다양성태도와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성을 밝혀 보고하였다. 문화다양성 관련 강의를 듣거나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세계시민의식이나 문화다양성태도가 높았으며, 심리적으로는 자기효능감이 높고 대인관계기술을 가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계시민의식과 문화다양성태도를 나타내었다.

글로벌 시민성은 개인이 갖는 세계화의 정도를 뜻하기 때문에, 자국문화에 대한 향유능력과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은 모두 글로벌시민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역이다. 글로벌 의식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문화 교육에서는 다문화 시민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하는데 힘쓰기도 한다(차윤경, 부향숙, 2014). 박명희, 김경식(2012)에 따르면, 예비교사들이 다문화 교육 강좌와 같은 형식적 경험을 통해 다문화 역량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글로벌 시민성 교육과 관련하여, 다문화 경험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험들이 글로벌 시민성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자 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 연구들의 결과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에 노출되고 유익한 경험이 있었느냐에 따라 다문화 인식 또는 수용성이 길러지며, 형식적인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보다는 비형식적 상황에서의 자연스러운 경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수렴된다(이세나, 강순미, 2013; 박명희, 김경식, 2012; 배성아, 정선영, 2012; 배정혜, 권민균, 2011; 하경애, 2010; Chang, 2002). 그러나 이 연구들의 연구 대상이 학령기 청소년보다는 대학생이나 교사와 같이 성인인 경우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학령기 청소년들의 글로벌 시민성 교육에 대한 시사점으로 직접적으로 확대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청소년들이 갖는 글로벌 시민성의 구체적인 성질을 검토하기 위하여, 글로벌 시민성 영역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여 이에 따라 청소년들을 유형화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시민성의 유형화를 통하여, 신체적 연령의 발달과 글로벌 시민성에 관하여 수렴되지 않은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글로벌 시민성이 개인 시민성과 공동체 시민성의 확장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측정한 글로벌 시민성의 타

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시민성과 개인 및 공동체 시민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글로벌 시민성 각 유형 집단과 청소년 개인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개인이 갖는 글로벌 시민성에는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국 청소년들의 글로벌 시민성 유형들이 개인이 가진 환경 요인들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총량이나 영역 점수에 따른 양적 비교 방법보다는 청소년 글로벌 시민성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유형화 분석을 사용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글로벌 시민성의 유형별 속성을 분석 및 해석하여 글로벌 시민성에 대해 선행연구들에서 설명해내지 못한 부분들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 청소년들의 글로벌 시민성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가?
2. 글로벌 시민성 유형과 개인 및 공동체 시민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3. 학교급별을 포함하여 개인의 교육적·사회적 배경 요인과 글로벌 시민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는 전국 16개 시도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6,637명으로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구체적인 분포는 <표 1>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고등학생이 44.5%, 중학생이 27.6%, 초등학생이 17.9%를 차지하였다.

<표 1> 응답 청소년 분포

구분		빈도수(명)	비율(%)
성별	남자	3,220	48.5
	여자	3,417	51.5
학교급	초등학교	1,190	17.9
	중학교	2,495	37.6
	고등학교	2,952	44.5
계		6,637	100.0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김태준, 백선희(2014)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사회참여역량측정도구개발]에서 구성하고 타당화한 사회참여역량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시민성을 측정하였다. 김태준, 백선희(2014)는 기존의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도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비도구를 구성하였고, 이를 초등학교 1,190명, 중학생 2,495명, 고등학교 2,952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도구의 타당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항내적 합치도를 통하여 신뢰도를 확보한 문항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도를 확보한 문항들로 사회참여역량측정도구가 구성되었다. 보다 자세한 문항 개발 절차와 타당화 과정은 김태준, 백선희(2014)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청소년 개인 시민성 측정도구 (김태준, 백선희, 2014)

역량 구분	요인구분 (문항 수)	문 항	문항 원출처
정치적 관심 및 정치적 자아 효능감 (8)	개인 시민성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	ICCS 2009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	
		나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권리·책임 의식 (4)	정치적 이슈 및 문제를 토론할 때, 나는 항상 토론에 참여한다.	
		나는 남들이 귀기울일만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성인이 되면, 나는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민주적 절차 및 의식 (2)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김태준 외 (2003)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어떻게 해서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었지 민주주의를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글로벌 시민성을 이루는 문항과 문항의 원 출처가 각각 <표 2>, <표 3>, <표 4>에 제시되어 있으며 음영처리된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는 해당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표 3> 청소년 공동체 시민성 측정도구 (김태준, 백선희, 2014)

역량 요인구분 구분 (문항 수)	문항	문항 원출처
공적 실천 (14)	성인이 된 이후 투표 참여 정도	ICCS 2009
	성인이 된 이후 투표하기 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 참여 정도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의 중요성 정도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의 중요성 정도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인권증진운동의 중요성 정도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환경보호운동의 중요성 정도	
	정치적 반대 의견 항목에 대해 성인이 된 이후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 해 리본이나 배지 달기' 에 대한 참여 정도	
	정치적 반대 의견 항목에 대해 성인이 된 이후 '비폭력 집회 참여' 에 대 한 참여 정도	
	정치적 반대 의견 항목에 대해 성인이 된 이후 '진정서에 서명하기' 에 대 한 참여 정도	
	정치적 반대 의견 항목에 대해 성인이 된 이후 '상품 불매 운동하기' 에 대한 참여 정도	
공동체 시민성	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꼭 지킨다.	김태준 외 (2003)
	나에게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입양할 수 있다.	ICCS 2009
	나는 자녀가 있어도 입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웃이나 동료에게 이익을 준다면 그 활동에 내 시간을 투자할 생각이 있다.	ICCS 2009
	이웃에 대한 신뢰 정도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	
	법원에 대한 신뢰 정도	
	경찰에 대한 신뢰 정도	
	정당에 대한 신뢰 정도	
	국회에 대한 신뢰 정도	
미디어(TV, 언론사, 라디오)에 대한 신뢰 정도		
군대에 대한 신뢰 정도		
학교에 대한 신뢰 정도		
적극적 의견 개진 (5)	성인이 된 이후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나 정당 돕기 참여 정도	ICCS 2009
	성인이 된 이후 정치단체 가입 참여 정도	
	성인이 된 이후 노동조합 가입 참여 정도	
	성인이 된 이후 지역 및 시 선출직 후보 출마 참여 정도	
	정치적 반대 의견 항목에 대해 성인이 된 이후 '벽에 항의 포어/스프레이/ 페인팅하기' 에 대한 참여 정도	
교실 개방성 (5)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발생 정도	ICCS 2009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학생들이 현재의 정치적 사건 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하는 정도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 라도 학급에서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정도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하는 정도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정도	

<표 4> 청소년 글로벌 시민성 측정도구 (김태준, 백선희, 2014)

역량 구분	요인구분 (문항 수)	문 항	
이민자에 대한 태도	(5)	이민자들의 자녀도 그나라의 아이들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ICCS 2009
		수년 동안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 후손들(예: 고려인, 조선족 등)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에 대한 허용 정도	
글로벌 시민성	(4)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이나 소수민족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에 대한 허용 정도	김태준 (2009)
		빈곤국가(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 나라로 이민 오는 것에 대한 허용 정도	
		우리는 되도록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사야한다.	
국가 및 역사 의식	(4)	안전 요원은 국가 안전을 위협할 용의자(예: 간첩 등)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할 수 있다.	ICCS 2009
		국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성취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의 존경을 받을만하다.	
국제 이해	(4)	다른 나라들의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ICCS 2009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신문기사 등에 대한 관심 정도	
		나는 외국인과 잘 지내는데 큰 문제가 없다.	
나는 외국을 방문할 때 그 나라에 적합한 매너와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습한다.			
성인지	(3)	가족의 생계문제는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ICCS 2009
		여성의 우선적 책무는 아이를 보육하는데 있다.	
		남녀가 함께 일하는 직장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맡는 것이 좋다.	

3. 분석 방법

한국 청소년의 글로벌 시민성이 어떻게 유형화 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하위 영역별 점수에 대한 표준점수를 투입하여 K-mean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군집분석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대상들끼리 집단을 형성하여 구분하는 다변량 분석 기법이며, 이렇게 형성된 각 집단을 군집이라고 부른다. 군집분석 결과 나타난 프로파일의 내용, 하위 영역과 대상의 특성 일치 정도, 사례수의 비율 등을 근거로 최적의 군집수를 결정하였다.

군집분석에서 나타난 각 영역의 평균 점수가 -.05 이하인 경우 해당 하위 영역이 낮은 집단이며 -1.0 이하인 경우 매우 낮은 집단으로 해석하였다. 마찬가지로 평균 점수가 0.5 이상인 경우 해당 하위 영역이 높은 집단이며 1.0 이상인 경우 해당 하위 영역이 매우 높은 집단으로 해석하

였다. 각 군집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시민성의 분포 특징을 고려하여 유형의 이름을 정하였다. 이후, 글로벌 시민성 군집 유형에 따라 개인 및 공동체 시민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글로벌 시민성 군집 유형과 유목 변수인 개인 배경변인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각 배경변인에 대한 청소년 글로벌 시민성 유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는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글로벌 시민성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7가지 유형

글로벌 시민성 관점에서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 이해, 성인지의 네 영역에 나타나는 분포에 따라 청소년을 유형화하는 군집분석 결과, 7가지 청소년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글로벌 시민성의 네 가지 하위 영역에서의 수준과 각 유형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반영하여, 글로벌 시민성 7가지 유형의 이름을 지었다.

<표 5> 글로벌 시민성의 각 구성요소와 7가지 유형

	7군집						
	I	II	III	IV	V	VI	VII
	글로벌 리더형	반성인지형	소외형	부정적 이민태도형	비국가 주의형	성인지형	비관용형
이민자태도	상	상	하하	하하	-	-	-
성인지	상	하하	-	상	-	상	하
국가및역사의식	상	상	하하	-	하하	-	-
국제관계이해	상	상	하하	-	-	하	하
빈도 (%)	995 (15.6)	868 (13.6)	548 (8.6)	655 (10.3)	872 (13.7)	1,206 (18.9)	1,241 (19.4)

글로벌 시민성과 관련된 청소년의 첫째 유형은 글로벌 시민성의 모든 영역 수준이 높은 글로벌 리더형이었으며, 전체의 15.6%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이민자에 대한 태도와 성인지적 측면에서 관용이 높았고 국가와 역사에 대한 의식 수준과 더불어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 수준도 높아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두루 갖춘 청소년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성인지를 제외한 다른 세 영역(이민자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 이해)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전체의 13.6%를 차지하였다. 성인지를 제외한 영역에서는 첫 번째 유형인 글로벌 유형과 같이 이민자에 대한 관용적 수준이 높았고, 국가와 역사에 대한 의식수준과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다. 그러나 성인지적 측면에서는 ‘하’보다 낮은 ‘하하’의 인식 수준을 나타내어, 이 유형을 반성인지형으로 명명하였다.

가장 낮은 비율인 8.6%를 차지한 세 번째 유형은 관용, 국가 및 역사 의식, 국제관계 이해의 모든 면에서 낮은 수준을 나타낸 소외집단이며, 소외형이라 명명되었다. 소외형이 성인지적 인식에서는 특별히 높거나 낮은 수준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서 관용적 수준이 가장 낮은 ‘하하’ 집단에 속하였다. 소외형은 국가와 역사에 관한 의식과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도도 ‘하하’의 수준을 나타내어 대부분의 영역에서 낮은 수준의 글로벌 시민성을 보여주는 유형이다.

네 번째 유형은 관용의 측면에서 반성인지형(유형 II) 집단과는 대비되는 반응을 보인 집단으로, 여성에 대한 평등의식은 높았으나 외부인인 이민자에 대해서는 낮은 의식을 가진 집단이다. 다른 영역에서의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게 드러나면서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다소 강하게 부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부정적 이민태도형으로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유형은 4가지 영역 중 다른 영역에서는 큰 특징을 나타내지 않고 국가 및 역사의식에서 낮은 수준을 보인 유형이다. 전체 청소년의 13.7%를 차지하는데, 이 유형은 국가와 역사에 대한 의식이 특징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비국가주의형이라 명명되었다.

여섯 번째 유형은 성인지가 높은 성인지형인데, 상대적으로 국제적 문제에는 관심을 낮게 보인 집단으로 전체 응답자의 18.9%를 차지하였다. 반성인지형(유형 II)이 남성 편재 집단인 반면, 여섯 번째 유형은 여성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여성 편재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유형은 국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고, 성인지적 관용이 낮은 것으로 특징 지워지는 유형이다. 이 마지막 유형은 비관용형이라 명명되었으며,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19.4%를 차지하였다.

2. 글로벌 시민성 유형과 개인 및 공동체 시민성 간의 관계

글로벌 시민성에 대한 7가지 청소년 유형과 개인 시민성 및 공동체 시민성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가지 개인 시민성 영역에 따른 글로벌 시민성 7가지 청소년 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뒤이어,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공동체 시민성과 청소년의 글로벌 시민성 유형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글로벌 시민성 유형과 개인 및 공동체 시민성의 전반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이상적인 글로벌 시민성 유형으로 구분되는 글로벌리더형들은 대체로 높은 개인 시민성과

공동체 시민성을 나타내었고, 글로벌 시민성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소외형에서는 개인 시민성과 공동체 시민성도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개인 시민성과 공동체 시민성의 각 영역과 글로벌 시민성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 결과에서는, 각 유형들과 관련된 개인 시민성과 공동체 시민성의 하위 영역들이 드러났다.

우선 개인 시민성 하위영역과 청소년 글로벌 시민성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치적 관심·자아효능감,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으로 구성된 개인 시민성의 영역에 따라 각 청소년 유형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개인 시민성 모든 영역에서 글로벌 시민성 7가지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글로벌 시민성 7가지 유형에 따른 개인 시민성 차이

	Total	I 글로벌 리더형	II 반성 인지형	III 소외형	IV 부정적 이민 태도형	V 비국가 주의형	VI 성인지 형	VII 비관용 형	F
N	6,385	995	868	548	655	872	1206	1241	
(%)	(100.0)	(15.6)	(13.6)	(8.6)	(10.3)	(13.7)	(18.9)	(19.4)	
정치적관심· 자아효능감	M 2.55 SD 0.62	2.92 0.57	2.95 0.61	2.05 0.57	2.70 0.58	2.54 0.52	2.27 0.50	2.41 0.49	308.596***
권리책임 의식	M 3.39 SD 0.59	3.74 0.43	3.42 0.58	2.92 0.75	3.44 0.59	3.37 0.56	3.52 0.49	3.19 0.51	174.540***
민주적 절차 및 의식	M 2.63 SD 0.74	2.90 0.83	2.21 0.82	2.60 0.69	2.68 0.77	2.68 0.66	2.79 0.63	2.47 0.59	95.843***

* $p < .05$, ** $p < .01$, *** $p < .001$

<표 7> 글로벌 시민성 7가지 유형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차이

	Total	I 글로벌 리더형	II 반성 인지형	III 소외형	IV 부정적 이민 태도형	V 비국가 주의형	VI 성인지 형	VII 비관용 형	F
N(%)	6,385 (100.0)	995 (15.6)	868 (13.6)	548 (8.6)	655 (10.3)	872 (13.7)	1206 (18.9)	1241 (19.4)	
공적실천	M 3.06 SD 0.50	3.44 0.37	3.24 0.45	2.49 0.56	3.07 0.47	3.01 0.45	3.07 0.41	2.87 0.38	359.873***
사회적 신뢰	M 2.41 SD 0.69	2.43 0.71	2.84 0.73	2.09 0.65	2.23 0.68	2.25 0.65	2.34 0.61	2.47 0.59	103.663***
적극적의견 개진	M 2.25 SD 0.78	2.29 0.82	2.82 0.81	2.03 0.67	2.20 0.80	2.18 0.73	1.95 0.65	2.25 0.69	129.944***
교실 개방성	M 2.53 SD 0.72	2.64 0.77	3.01 0.70	2.15 0.66	2.44 0.74	2.44 0.68	2.38 0.68	2.55 0.60	115.682***

* $p < .05$, ** $p < .01$, *** $p < .001$

글로벌리더형(유형 I)은 집단 중 모든 개인 시민성 요인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글로벌리더형은 정치적 관심과 자아효능감을 제외한 두 영역에서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한 수준의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7가지 유형 중 가장 높은 정치적 관심과 자아효능감을 나타낸 반성인지형 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은 정치적 관심과 자아효능감을 나타내었다.

성인지만 낮았던 반성인지형 집단(유형 II)은 글로벌리더형의 청소년들과 유사한 수준의 가장 높은 정치적 관심과 자아효능감을 보였으나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인 여성에 대한 평등의식이 낮았던 반성인지형 집단은 민주적 절차와 의식 수준 역시 낮았다.

소외형 집단(유형 III)은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을 제외한 정치적 관심 및 자아효능감과 권리·책임의식에서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교급이 높아지며 성인기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정치적 관심과 자아효능감, 권리·책임의식이 낮은 소외형 청소년 비율이 늘어났다.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높았던 부정적 이민태도형(유형 IV)은 모든 개인 시민성 영역에서 평균보다는 약간씩 높았으며, 정치적 관심과 자아효능감이 좀 더 큰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났다. 글로벌 시민성에서 낮은 국가 및 역사의를 보이는 것으로 구분된 비국가주의형(유형 V)은 개인 시민성 영역에서 전체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한편 성인지만 높았던 성인지형(유형 VI) 집단은 개인 시민성에서 정치적 관심 및 자아효능감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았으나 권리·책임의식과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인지형과 같이 국제관계이해가 낮았으나 성인지도 낮았던 비관용형 집단(유형 VII)은 개인 시민성의 모든 영역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관용이 높았던 성인지형 청소년 집단이 정치적 관심 및 자아효능감을 제외하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개인 시민성을 보여주었던 것과 비교하여, 비관용형 집단이 개인 시민성의 모든 영역에서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개인 시민성에서 관용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공적실천과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 개진 및 교실개방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시민성에서의 각 청소년 유형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영역의 공동체 시민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7> 참조).

글로벌리더형(유형 I)의 경우 공적실천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는데 높은 개인 시민성이 참여로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사례로 사료된다. 반성인지형(유형 II) 집단은 사회적 신뢰가 높았으며 특히 적극적 의견개진과 교실개방성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아 자신의 의견에 대한 자신감 있는 개진을 보이는 적극적인 공동체 시민성을 나타냈다. 소외형(유형 III) 집단은 모든 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공동체 시민성을 나타냈다.

부정적 이민태도형(유형 IV)은 개인 시민성에서 정치적 관심과 자아효능감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시민성에서는 소외형 집단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를 나타내어, 사회적 이방인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낮은 사회적 신뢰에서 기인함을 추측하게 했다. 비국가주의형(유형 V)은 개인 시민성에서는 별다른 특징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공동체 시민성에서는 적극적 의사개진과 교실개방성에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고 특별히 사회적 신뢰가 다른 유형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편재 집단인 성인지형(유형 VI)에서는 공동체 시민성 영역 중 사회적 신뢰와 교실개방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별히 적극적 의사개진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관용형(유형 VII) 집단 청소년은 타인에 대한 비관용적 태도를 보인 만큼 공격 실천 역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3. 글로벌 시민성 유형과 개인 배경변인 간의 관계

글로벌 시민성 7가지 유형이 성별, 학교급, 거주지역, 생활만족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개인 배경변인에 따른 집단별 유형의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여 <표 8>에 제시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청소년의 4가지 배경변인 중, 성별, 학교급, 생활만족에서는 글로벌 시민성 유형의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반면 거주지역의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라 유형별 분포가 일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글로벌리더형(유형 I)은 여학생이 62.4%로 남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호혜와 관용의 측면이 중시되는 여성적 가치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글로벌리더형의 학생들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다. 읍/면 지역보다는 도시에 거주하고, 생활에 불만족하기보다는 생활에 만족하는 경우에, 글로벌리더형의 학생이 증가하였다.

두 번째 유형인 반성인지형(유형 II)은 다른 유형과는 달리 초등 및 고등학교 단계보다 중학교 단계에서 많이 나타났다. 다른 학교급에 비교하여, 중학교 단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유형은 반성인지형이 유일하다. 반성인지형은 글로벌리더형과 함께 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이 다른 유형보다 높았다.

소외형(유형 III)은 글로벌리더형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해당 청소년의 비율이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초등학교 단계에서 중학교 단계로 넘어갈 때 그 증가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또한, 생활만족 여부에서 다른 유형 집단에 비하여 생활에 불만족

상태인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부정적 이민태도형(유형 IV)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읍면 지역 거주 학생들의 비율이 다소 낮은 편이었다.

비국가주의형(유형 V)은 네 번째 유형인 부정적 이민태도형과 유사하게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이민자나 국가제도에 대해 크게 비판적이지 않았던 청소년들이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로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공적기관에 대해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성인지형(유형 VI)으로 명명된 것과 같이, 성인지형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별을 기준으로 여학생들이 편중적으로 속한 유형이며, 학교급별 변화에서는 전체 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생활만족 여부에서는, 성인지형이 만족 집단보다는 불만족하는 집단에 좀 더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마지막 유형인 비관용형(유형 VII)은 성별 기준으로 남학생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으며, 생활만족 수준으로는 생활에 만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편이었다.

<표 8> 글로벌 시민성 7가지 유형과 청소년 배경변인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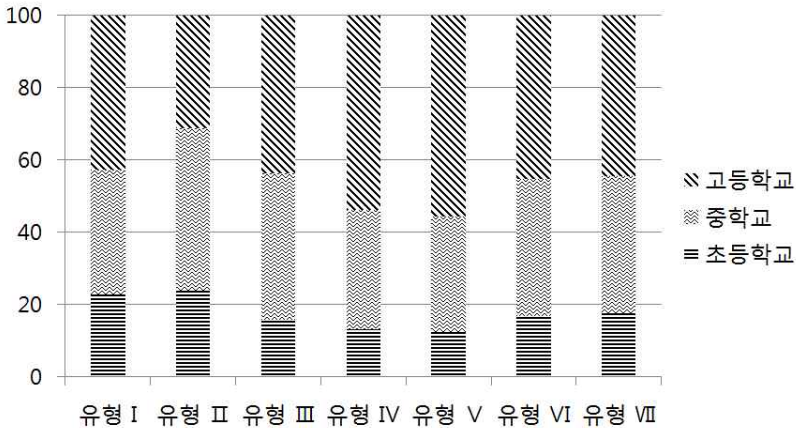
	total	유형							χ^2	
		I 글로벌 리더형	II 반성 인지형	III 소외형	IV 부정적 이민 태도형	V 비국가 주의형	VI 성인지 형	VII 비관용 형		
N(%)	6,385 (100.0)	995 (15.6)	868 (13.6)	548 (8.6)	655 (10.3)	872 (13.7)	1206 (18.9)	1241 (19.4)		
성별	남	48.5	37.6	69.8	57.7	43.4	50.9	31.1	56.7	412.570***
	여	51.5	62.4	30.2	42.3	56.6	49.1	68.9	43.3	
학교급	초등학교	17.9	22.9	23.8	15.9	13.3	12.5	16.8	17.6	157.004***
	중학교	37.6	34.4	45.0	40.5	32.8	31.8	38.1	38.0	
	고등학교	44.5	42.7	31.1	43.6	53.9	55.7	45.0	44.4	
지역 규모	대도시	40.9	44.3	42.2	41.6	42.1	42.1	42.2	39.5	9.664
	중소도시	48.1	45.0	47.4	45.8	48.1	46.8	46.5	47.9	
	읍/면지역	11.0	10.7	10.5	12.6	9.8	11.1	11.3	12.7	
생활만 족여부	만족	78.2	85.1	87.8	61.6	72.5	75.5	73.8	81.1	196.015***
	불만족	21.8	14.9	12.2	38.4	27.5	24.5	26.2	18.9	

*p<.05, **p<.01, ***p<.001

청소년들의 성별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글로벌 시민성 차이는 주로 글로벌 시민성 영역 중 하나인 성인지 영역의 수준에 따라 나타났다. 그 예로, 남자 청소년들이 편중된 반성인지형

(유형 II)과 여학생들이 많이 속한 성인지형(유형 VI)을 들 수 있다.

각 유형별 학교급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유형 별 학교급간 분포를 도식화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학교급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는 초등학생(17.9%), 중학생(37.6%), 고등학생(44.5%)의 분포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집단의 구성 비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서인 반면, 두 번째 유형인 반성인지형에서는 중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 번째인 소외형에서도 중학생의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이민태도형(유형 IV)과 비국가주의형(유형 V)은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다른 유형에 비교하여 그 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글로벌 시민성 영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어 부정적인 유형으로 구분되는 소외형(유형 III) 또한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그 빈도가 낮다. 다시 말해, 부정적 이민태도형과 비국가주의형들은 초등 및 중등 단계가 아닌 고등학교 단계에서 그 수가 증가하였다.



[그림 1] 글로벌 시민성 유형별 학교급 비율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1) 글로벌 시민성의 유형, 2) 글로벌 시민성 유형과 개인 및 공동체 시민성의 관계, 3) 개인 배경요인과 글로벌 시민성 유형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글로벌 시민성의 7가지 유형(글로벌리더형, 반성인지형, 소외형, 부정적 이민태도형, 비국가주의형, 성인지형, 비관용형)이 도출되었다. 개인 시민성과 공동체 시민성의 영역들이 글로벌 시민성 유형 특징과 갖는 관계를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개인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글로벌 시

민성의 연계성이 (글로벌 시민성이 개인 및 공동체 시민성의 확장이라는) 이론적인 배경과 동일한 양식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개인 배경변인들과 글로벌 시민성 유형의 분석에서는, 성별, 학교급별, 생활만족정도에 따라 글로벌 시민성 유형의 분포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이렇게 청소년 개인의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배경변인(성별, 학교급 등)과 글로벌 시민성 유형을 함께 분석한 이유는, 청소년들이 각각 자신의 환경과 기본적인 시민성 수준에 따라 다른 특성의 또한 다른 수준의 글로벌 시민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배경정보나 환경요인에 따라 글로벌 시민성 특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글로벌 시민성 교육의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1. 글로벌 시민교육에 대한 시사점

7가지 글로벌 시민성 유형 중 이상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리더형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생활에 만족할수록 그 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도시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때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용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용이하게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성인지형(유형 II)은 글로벌 시민성 영역 중 성인지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와 대안을 개인 및 공동체 시민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학교 남학생의 분포가 현저하게 높았던 반성인지형의 경우는, 개인 시민성에서 민주적 절차와 의식 수준이 낮았고 적극적인 공동체 시민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개인 및 공동체 시민성이 자신과 다른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동성 집단에 대한 동일시가 강하게 나타나는 남자 중학생들의 특성이 이성 집단인 여학생들에 대한 인식과 배려 수준이 낮아지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이들이 바람직한 정치적 행태를 나타내도록 도우려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배려와 관용과 더불어 민주적 가치를 교육하여 이들의 높은 참여의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글로벌 시민성 유형 중 가장 부정적인 유형은 소외형(유형 III)이며, 이 유형은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단계에서 중학교 단계로 넘어갈 때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글로벌 시민성뿐만 아니라 개인 및 공동체 시민성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학교급이 높아지며 성인기에 가까울수록 오히려 정치적 관심과 자아효능감, 권리·책임의식이 낮은 소외형 청소년 비율이 늘어났다. 이는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풍토 속에서 청소년들의 민주적 가치와 의식이 성장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고등학교 단계에 진입하기 이전에 초등학교 후반과 중학교 단계에서 청소년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실패 경험을 갖게 되면서 효능감과 책임의식이 감소하고 동시에 민주적 가치, 사회 참여, 배려 등의 글로벌 시민성이 자라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소외형뿐만 아니라 부정적 이민태도형(유형 IV)과 비국가주의형(유형 V) 역시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글로벌 시민성 교육에 대한 학교교육의 접근이 이제까지와는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이민자나 국가 및 사회에 대해 크게 부정적 인식이 없던 청소년들이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로 부정적 인식과 불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좀 더 높은 단계의 학교에서 글로벌 시민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비국가주의형의 경우에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비국가주의형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건강한 글로벌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어, 비공식적 경험을 통해 글로벌 시민의식이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다. 관련된 예로, 본 연구에서 도시 지역 학생에 비하여 읍면 지역 거주 학생들에게서 부정적 이민태도형이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변에서 이민자를 쉽게 만날 수 있고 이민자와 공존하는 지역사회가 형성되거나 이민자와 개인적 관계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여학생들이 다수 포함된 집단인 성인지형(유형 VI)은 개인 배경변인 중에서는 생활만족여부의 영향이 커서, 생활에 불만족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높았다. 성인지형의 개인 및 공동체 시민성 영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개인 시민성에서 정치적 관심 및 자아효능감이 낮게 나타났고 공동체 시민성에서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가장 낮은 편이었다. 이에 성인지형은 개인의 지식적인 시민성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 의사개진과 같은 실천적 시민성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민주적 가치를 수용하는 성인지 집단이 향후 바람직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개인적인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통해서, 성인지형 청소년들이 개인 및 공동체 시민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민성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비관용형(유형 VII)은 남학생인 경우와 생활에 만족하는 경우에 좀 더 분포하였다. 비관용형 청소년은 학교나 생활수준과 같은 환경의 영향보다는 개인 시민성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히 공동체 타인에 대한 비관용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 공적 실천과 같은 공동체 시민성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비관용적 태도가 적극적 정보탐색을 방해하여 국제관계이해와 같은 글로벌 시민성에 영향을 미쳤다. 비관용형 청소년을 위해서는 감수성훈련과 같이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다른 시민성 요소들이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제안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글로벌 시민성에 대한 논의와 글로벌 시민성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불균형적 분포, 분석방법, 제한적 배경변인 사용 등에서

한계를 갖는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단계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을 위한 상당한 사례를 수집 하였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참여한 학생수가 늘어났다. 이후 연구에서 각급 학교 단위에서 유사한 비율로 사례수가 확보된다면, 좀 더 균형잡힌 분석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방법에 비위계적 군집분석만을 실시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이 가진 장점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위계적 및 비위계적 군집분석이 가능한 자료수집이 가능해진다면, 군집분석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네 가지 배경변인을 글로벌 시민성 유형과 함께 분석하였다. 청소년 개인 관련 변인으로, 개인의 가정환경 변인이나, 심리적 변인, 학업성취도나 학교에서의 집단활동과 같은 학교 변인들이 함께 수집될 수 있다면 글로벌 시민성 교육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연령과 글로벌 시민성 간의 발달적 관계에 있어 일관되고 안정적인 설명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학교급을 포함하여 다른 개인변인, 개인 및 공동체 시민성, 글로벌 시민성 유형별 특성 등을 함께 분석하였다. 한국 청소년의 글로벌 시민성 유형을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글로벌 시민성에 대한 질적 이해를 가능케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개인 및 공동체 시민성과 글로벌 시민성이 갖는 개념적 일관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개인의 배경변인들이 글로벌 시민성 유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밝힘으로서, 청소년의 배경 정보에 따른 차이를 참고하여 학교급이나 환경요인에 따라 다른 글로벌 시민성 교육의 내용과 관련 논의를 제안하였다. 연구에서 제시된 학교급이나 개인의 특성에 맞는 글로벌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까지 확인되는 연구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한국 청소년의 글로벌 시민성이 효과적으로 개발되는 데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정언(2013).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 기업의 글로벌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교양교육연구**, 7(3), 97-137.
- 김다원(2011).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논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4), 477-492.
- 김기현, 맹영임, 장근영, 구정화, 강영배, 조문흠(2009). **청소년생애핵심역량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자율과 행동영역**.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옥순(2010). 아동의 세계시민의식 형성에 미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26, 8-28.
- 김정덕, 이은경(2014). 대학생의 다문화 경험에 따른 다문화 교류 인식 및 글로벌 역량과의 관계. **제 1회 K-CESA 활용 대학생 핵심역량 학술대회**, 67-94.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정화, 박선희, 조상미(2010). 한국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과 문화다양성태도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17(4), 183-210.
- 김태준(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김남희, 이병준, 한준(2003).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본 시민의식 측정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백선희(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IEA ICCS - 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이석희(2010). **글로벌 시민문화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전인식, 변종임, 장혜승, 반재천, 조영하(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참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최상덕, 장근영, 이기홍(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노상충, 정홍식, 서용원(2012). 글로벌 역량 척도(GCS)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4), 801-831.
- 박명희, 김경식(2012). 다문화 교육장좌를 통한 예비교사들의 다문화 역량변화, **다문화교육연구**, 6(5), 155-176.
- 배성아, 정선영(2012). 예비중등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1), 161-181.

- 배정혜, 권민균(2011). 유아교사의 다문화교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구조모형분석. **아동교육**, 20(4), 155-172.
- 백소영(2013). Rasch 모형을 적용한 글로벌 인재역량 척도 개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선곡유화, 이영선(2014). 역량중심의 다문화교육 방안 탐색.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31-139.
-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2015).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2), 117-144.
- 오석영, 최창욱, 진성희(2015).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 지표 개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2(2), 1-22.
- 유현숙, 김대준, 이석재, 송선영(2004). **국가수준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질관리 연구 (I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윤철경, 박선영(2011). 글로벌시티즌십 교육정책의 세계적 동향. **시민청소년학연구**, 2(2), 31-65.
- 이관춘(2011). 글로벌 시대의 시민청소년 역량: 행복을 위한 적극적 시민성을 중심으로. **시민청소년학연구**, 2(2), 5-29.
- 이동수(2009). 지구화 시대의 시민권. 박재창(편), **지구시민권과 지구거버넌스**. 서울: 오름.
- 이세나, 강순미(2013). 다문화 경험에 따른 예비 유아교사의 다문화감수성, 다문화교육태도, 다문화교수효능감에 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4), 95-124.
- 이한웅(2014).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 글로벌 R & D 협력 성과와 글로벌 역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이효미, 김명소, 한영석(2011). 글로벌 마인드 역량의 구성요인 탐색 및 지수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4(3), 493-521.
- 정용교(2013). 다문화시대 세계시민교육의 현황과 대안모색: 사회과교육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20(2), 109-123.
- 차윤경, 부향숙(2014). 청소년 다문화시민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연구.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지**, 563-574.
- 천정웅(2013). 다문화사회에서의 청소년 시민역량 함양에 관한 연구. **글로벌청소년학연구**, 3(2), 23-42.
- 천정웅(2014). 청소년학 분야의 글로벌청소년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4), 59-81.
- 최인재, 김지경, 임희진, 강현철(2011).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연구보고**.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하경애(2010).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영향요인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한상철(2009).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개발을 위한 학교 밖 활동의 중요성과 과제. **미래청소년학**

희지, 6(3), 91-110.

- Chang, I. S. (2002).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eacher's ethnic identifications and attitudes toward language diversity: A recursive path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 Davies, L. (2006). Global citizenship: abstraction or framework for action? *Educational Review*, 58(1), 5-25.
- Hett, E. J. (1993).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global-mindednes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andiego.
- Oxfam (1997). A curriculum for global citizenship. Oxford: ox
- Parekh, B. (2003). Cosmopolitanism and global citizenship.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9, 3-17.
- Philips, D., & Bermans, Y. (2001). Social quality and community citizenship. *European Journal of Social Work*, 4(1), 17-28.
- Richardson, R. (Ed.) (1979) Learning for change in world society. London: World Studies Project.
- Stanley, L. S. (1996).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strument to assess attitudes toward cultural diversity and pluraliam among pre-service physical educator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6(5), 864-870.
- Wimmer, A. (1997). Explaining xenophobia and racism: A critical review of current research approaches. *Ethnic and Racial Studies*, 20(1), 17-41.

* 논문접수 2015년 8월 10일 / 1차 심사 2015년 9월 7일 / 게재승인 2015년 9월 15일

* 이은경: 한양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석사를 받고, 미 피츠버그대학교에서 교육정책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고등교육, 평생교육, 교육복지, 교사교육, 시민교육 영역에 주된 연구관심을 두고 있다.

* E-mail: hannahl222@gmail.com

* 오민아: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측정및평가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측정 및 평가 전공으로 박사 과정 수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문항반응이론, 정의적 특성 검사, 학업성취도 검사, 하위점수 등이다.

* E-mail: minahs918@gmail.com

* 김태준: 한양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를 받고,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IEA 세계시민 교육연구(ICCS 2009, 2016) 한국측 연구조정관(National Research Coordinator)이며 시민교육, 평생교육 등에 주된 연구관심을 두고 있다.

* E-mail: tjkim@kedi.re.kr

Abstract

Analysis on the Global Citizenship Types of Korean Youth

Lee, Eun Kyung*

Oh, Minah

Kim, Tae-Jun**

Global citizenship is a person's consciousness and attitude as a global citizen. In the 21st century, global citizenship is an essential competency for Korean youth living in a multi-cultural society and in the period of global network.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provide global citizenship types of Korean youth from primary school level to high school level,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community citizenship and global citizenship types,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background variables(gender, school level, residence area, life satisfaction) and global citizenship types. Global citizenship consists of attitude to immigrants, country and history perception,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relations, gender sensitivity. 6,637 Korean youth from 16 cities and provinces participated in the survey. Using cluster analysis, seven types of global citizenship were presented; global leader, anti-gender, outsider, anti-immigrant, anti-state, gender-awareness, and pessimist. The ideal type, global leader presented higher individual and community citizenship, but the negative type, outsider showed lower individual and community citizenship. The characteristics of global citizenship types were analyzed by the sub-factors of individual and community citizenship. Among four individual background variables, three variables(gender, school level, and life satisfac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global citizenship types. The effect of gender was mostly based on the gender sensitivity among four global citizenship factors. The negative types(outsider, anti-immigrant, and anti-state) of global citizenship dramatically increased their portion as the schools moved up to higher levels. The positive types had a tendency to be satisfied with their lives, but the negative types were the opposite. Based on the output of the study, individualiz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ere supposed and the implications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y school levels were discussed.

Key words: Global Citizenship, Cluster Analysi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dividual Citizenship, Community Citizenship, Multi-cultural Education

* First author, Researcher, KNOU(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hannah1222@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Research fellow, KEDI(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jkim@kedi.re.kr

